한국고전연구 28집/한국고전연구학회/2013/157-182쪽

한국 고전서사문학의 번역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 모색

정선희*

<차 례>

1. 머리말
2. 한국 고전서사문학 번역의 양상
3. 한국 고전서사문학의 번역 방안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 모색
4. 맺음말

〈국문초록〉

우리 고전문학의 세계문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번역'의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 교육'에 있어서의 활용과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소재'로 활용하는 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재 구성에 고전서사문학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고전문학의 세계적 확산이 가능할 것이기에, 한국어와 한국 전통문화, 전통적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합한 교육 제재를 선택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화나 연극, 드라마, 광고,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만들 때에 고전서사문학을 소재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우리 고전문학이 급속도로 세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외국인 교육에 있어서의 고전서사문학 활용 문제는 몇몇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이미 함께 논의하였기에 여기서 다시 다루지 않았다. 또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콘텐츠 제작 소재로 활용하는 문제부터 논의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다.

* 홍익대학교 국문과 교수.

www.kci.go.kr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고전서사문학의 번역 상황을 고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지를 제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고민했으며, 어떤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번역하면 우리 고전서사문학이 좀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읽혀 세계문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고전서사문학의 번역물이 확산됨으로써 전체 세계문학사에는 어떤 새로움이 더해질 수 있을지, 우리 문학계에는 어떤 지평이 열릴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우리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전세계 간에는 번역물을 매개로 하여 상호 문화 이해와 소통의 장이 열려야 할 것이다. 우리 고전문학을 전파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들의 문학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번역물을 읽음으로써 그동안 전혀 몰랐던 우리의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관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어 자국의 문학을 우리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고픈 마음이 생기게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여 서로 소통하게 된다면 나라 간의 문학과 문화, 언어가 고립되지 않고 공유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세계문학사는 풍부해질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문학사가 강대국 중심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성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제3세계 문학이나 소외된 이들의 문학에도 주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 우리 문학의 번역의 활성화는 이러한 흐름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고전서사문학, 한국문학, 번역, 영역(英譯), 세계문학, 한국문화, 확산

1. 머리말

우리 고전문학의 세계적 전파와 확산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우선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문학의 최초 한영(韓英) 번역물인 『한국의 민담(Korean Tales)』이 1889년에 출간되었고, 이후 1892년에 <춘향전> 한불(韓佛) 번역물이, 1893년에 <춘향

www.kci.go.kr

전>, <토끼전> 등 이야기 모음집이 『동화와 전설집』으로 한독(韓獨) 번역물이, 1922년에 <구운몽> 한영(韓英) 번역물이 출간된 것을 필두로 하여 많은 설화집과 고전소설, 고전시가 등이 번역·출판되었다.[1] 특히 90년대 이후 한국문학 전반의 외국어 번역이 급속히 늘어 1,500여 종에 이르고 있으나 현대소설과 현대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2007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도하는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0여 편의 한국고전문학 작품의 영역(英譯)이 지원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고전서사문학 중에서도 이미 <금오신화>, <장화홍련전>, <박씨전>, <삼국유사>, <열하일기> 등이 지원 받았으며, 올해에도 애정소설, 영웅소설, 우화소설, 세태소설, 전기소설, 한문장편소설 등 다양한 소설 작품들의 번역자를 공모하였다. 하지만 최종 선정된 것은 두 과제[2]뿐이었으며 그것도 역사학과 철학 관련 분야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번역하는 작품이나 이본 선정의 면, 번역 수위의 면, 지원 정책의 면 등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고전문학의 세계문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번역'의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 교육에 있어서의 활용과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소재로 활용하는 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재 구성에 고전서사문학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고전문학의 세계적 확산이 가능할 것이기에, 한국어와 한

1) 송영규, 「한국 번역 문학의 전망과 과제」, 『문예운동』95, 2007. ; 조동일외, 『한국학 고전 자료의 해외 번역 : 현황과 과제』, 계명대 출판부, 2008.

2) 다산 정약용의 『논어고금주』, <시화총림>과 <지봉유설>, <병자록> 등을 함께 묶어 한국의 근세사를 소개하는 『조선후기 문헌』임.

www.kci.go.kr

국 전통문화, 전통적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합한 교육 제재를 선택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영화나 연극, 드라마, 광고,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만들 때에 고전서사문학을 소재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우리 고전문학이 급속도로 세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이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정된 소재 때문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고전문학에 관심을 기울여 소재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보편성과 함께 독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외국인 교육에 있어서의 고전서사문학 활용 문제는 필자를 비롯한 몇몇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함께 논의하였기에[3] 여기서는 다시 다루지 않는다. 또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콘텐츠 소재로

3)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 2013년 2월 기획 학술대회를 했고 필자도 논문(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 2013. 6.)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물들은 한국고전연구 27집에 실려 있는데, <심청전>, <숙영낭자전>, <소대성전>, 전설 몇 편이 활용 가능한 교육제재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고전소설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고급단계의 제재'로 적절하다는 생각 하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현재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 받기 위해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20대의 청년들이기에 '애정'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고, 자신의 애정 성취와 인생 행로, 부모님 의사와의 조율 등으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고전소설 중에서도 애정소설인 <숙영낭자전>을 교육제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학생들이기에 비교적 알기 쉽게 현대역 된 고전소설을 한 편 읽히고 나서, 작중 인물들의 행동이나 상황 등을 예문으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의 수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작품 속의 내용이 당대의 현실 상황과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거나, 작품 속에서는 몇 줄의 적은 서술이었지만 이를 단초로 삼아 더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치관과 문화가 당대인들의 그것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기에, 당시의 생활과 인식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담아냈고 당대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상을 그려냈다고 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과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www.kci.go.kr

활용하는 문제부터 논의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별고를 준비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 고전문학 중에서 유독 '고전서사문학'의 번역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논하는가? 물론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는 여러 문화유산에 들어 있지만, 그 중에서 고전서사문학에는 우리 민족의 풍속과 생활 문화 등 일상생활과 가치관, 인간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면서도 이를 흥미로운 서사로 덧씌워놓았기에 재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 문학, 언어 사용 등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외국인 학습자나 독자들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나 고전문학에 문외한이거나 거부감마저 지니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고전서사문학의 번역 상황을 고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지를 제안하려 한다.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필요한 사항,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고민할 것이며, 어떤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번역하면 우리 고전서사문학이 좀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읽혀 세계문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려 한다. 또한 우리 고전서사문학의 번역물이 확산됨으로써 전체 세계문학사에는 어떤 새로움이 더해질 수 있을지, 우리 문학계에는 어떤 지평이 열릴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2. 한국 고전서사문학 번역의 양상

앞에서 잠깐 살폈듯이 우리 문학의 번역은 19세기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비교적 정확하고도 효과적인

www.kci.go.kr

번역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2001년에서 2009년까지 총 29개 언어권으로 466작품을 선정하여 번역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고전은 62작품이며 문학과 역사, 철학서가 섞여 있으므로 고전문학의 비율은 10%정도 된다. 대산문화재단에서도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90작품을 번역 지원했는데 고은, 박완서, 김지하 등의 현대문학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4] 이후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그 다음해부터 번역 지원을 받아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네델란드어, 터키어, 핀란드어 등 무려 13개 국어로 출간되었으며, 황석영의 <바리데기>는 9개 국어로 출간되는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점이 고무적이다. 김애란, 김연수, 김영하, 신경숙, 성석제 등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대소설 작가들의 작품이 비교적 신속하게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는[5] 점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번역물들은 주로 현대문학에 치중해 있다. 지금까지 황순원, 김동리의 소설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채만식의 <태평천하>, 최인훈의 <광장>,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등 장편소설들도 번역되었다. 현대시의 경우는 서정주와 김지하의 시가 가장 주목 받았으며, 한용운, 정지용, 박목월, 박두진, 모윤숙, 고은, 황동규 등의 시선집도 번역되었다. 박태원의 <천변풍경>은 독일학자 아우구스틴과 한국인 박경희가 공동 번역하였는데, 작가의 유머와 세태를 꿰뚫는 예리함 등을 잘 살린 색다른 도시 소설로 평가 받고 있다.[6]

---

4) 윤여탁, 「세계화 시대의 한국문학 : 세계문학과 지역문학의 좌표」, 『국어국문학』 155, 2010. 8, 23~24쪽.

5)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간도서 목록, 2013년 10월 번역원 홈페이지 참고.

6) 권영민,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세계비교문학연구』, 1996, 10~11쪽. ; 김재현, 「한국시 영역의 현황 및 방법론적 고찰 - 문제와 전망」, 『영어영문학』34

www.kci.go.kr

이렇게 현대문학 작품들이 많이 번역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인화의 장편소설 <영원한 제국>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에 대한 논의[7]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있거나 조선후기의 어휘들과 풍속들, 동양 고전과 한문 문헌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이 녹아 있는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작품의 경우, 프랑스 독자 즉 도착어권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거나 번안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작가가 작품 속에 숨겨 놓은 접혀져 있는 깊고도 많은 주름들은 상징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해석과 울림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도착어권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줄거리 위주로 번역을 하다 보니 그 주름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즈라 파운드가 말한 번역의 세 가지 기능 즉 독서, 비평, 시적인 재생산 중 시적인 재생산의 기능에 소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1995년에 정종화가 번역한 김동리의 <무녀도>, 1998년에 서지문이 번역한 신경숙의 <그 여자의 이미지>, 1999년에 전경자가 번역한 박완서의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등이 최근에 연구되면서 이러한 번역물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면을 얼마나 섬세하게 번역하였고 문체의 특성도 잘 살려내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8] 이들을 통해 볼 때에, 원문의 어휘가 도착어권에서 통용되

권 1호, 1988.

7) 이인숙, 「한국문학 프랑스어 번역에 대한 고찰-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56, 2003.

8) 박옥수, 「한영 문학번역에서 드러난 인간관계의 반영: <무녀도>의 영역본을 중심으로」, 『비교문학』58, 2012. 10.; 박옥수, 「한국 단편소설의 번역에서 드러난 가독성의 규범 - 신경숙의 <그 여자의 이미지> 영역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48, 2012. 6.; 박옥수, 「한영 문학번역에서 의미의 정착 -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의 영역본의 분석에 근거해서」, 『비교문학』 60, 2013. 6.

www.kci.go.kr

지 않을 경우,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축어적 번역을 하면 원문의 의미가 약화될 경우에 번역하기가 어렵고, 공손함을 드러내는 경어법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인간관계, 은유적인 표현 등을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에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던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캔 같은 이는 김소월의 시를 번역할 때에 한국의 현대사와 한국 시의 특성 등에 대한 긴 설명을 책 앞에 덧붙여 놓아[9] 서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시를 번역할 때에도 김소월 시인의 시적 표현의 단순성 속에 영원불멸한 시 정신을 담아낸 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수용하면서 체념을 통한 삶의 달관에 도달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율격이나 반복 등의 형식적인 면도 살려내면서 하였다. 하지만 '접동새'를 뻐꾸기를 뜻하는 Cuckoo로 번역하여 접동새가 암시하는 슬픈 정조와 한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아우래비 접동'을 my little brother로 번역하여 아홉 오라비를 뜻하는 방언인 아우래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10]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 문학의 번역은 주로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고전문학 특히 고전서사문학은 활발하게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은 현대문학의 사상적, 문학적 연원이 되므로

9) McCann David,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4. 그를 비롯한 몇 명의 번역가가 참여한 이 책에는 김소월, 한용운, 정지용, 김영랑, 이상, 노천명, 백석, 윤동주, 서정주,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김춘수, 박재삼, 신경림, 고은, 황동규, 김지하, 강은교, 김혜순, 황지우, 박노해 등 많은 시인의 시들이 번역되어 있다.

10) 김효중, 「한국 현대시의 영역에 관한 고찰 - 김소월 시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문학』42, 2007.

www.kci.go.kr

이를 소개하고 보급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문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전통적·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기에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연계 속에서만이 한국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대학에 주로 제공되어 왔던 동서양의 고전문학 목록에 한국의 고전문학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국학 관련 학과나 과목에서 고전문학을 통한 문학 교육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고전 서사문학 번역물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사안으로 보인다.

고전문학 중에서는 예전부터 '시조'가 주로 번역되었다.[11] 고전서사문학 중에서는 길이가 짧은 설화들이 주로 번역되었으며, 고전소설 중에서는 판소리계 소설, 가정소설, 연암의 소설 등 대략 30여 편의 중·단편이 번역되었다[12]. 이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된 책들이기는 하지만, 대상본의 선택이라든지 미묘한 문맥 파악, 고유문물과 생활풍습의 전달, 문체나 운율의 전달, 속담·관용구·고유명사 번역 등의 면에서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 이에 필자는 몇 년 전에 외국 독자들에게 번역될 필요가 있는 서사문학 작품들을 제안했었다. 우리 서사문학의 다양성과 문학성을 제대

11) 박진임,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 시조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8권 1호, 2007, 153쪽.

12) <구운몽>, <배비장전>, <사씨남정기>, <심청전>, <장끼전>, <장화홍련전>, <전우치전>, <양반전>, <열녀함양박씨전>, <허생전>, <호질>, <옹고집전>, <운영전>, <이생규장전>, <이춘풍전>, <인현왕후전>, <임경업전>, <임진록>, <장끼전>, <장화홍련전>, <춘향전>, <콩쥐팥쥐전>, <토끼전>, <한중록>, <황새결송>, <흥부전> 등이다. 오윤선, 「<춘향전> 영역본의 고찰-삽입시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23집, 판소리학회, 2007. 6, 401~402쪽 참조.

www.kci.go.kr

로 보여주기 위해서 김시습, 허균, 박지원 등 최고의 지성을 지녔던 문인들의 소설들과 함께 소외된 문사들의 애정전기소설들, 서민들의 삶의 실상과 염원을 담은 가정소설과 군담소설, 민중들이 구전으로 향유하던 이야기를 채록한 야담집 등을 고루 선정하여 시리즈물로 구성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3] 아울러 우리 고전 서사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에는 그 독창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묘사, 인물들의 입체성 등을 최대한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고전서사문학의 번역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고전텍스트의 영어 번역의 동향을 보면, 2000년에 『초기 한국문학 선집』이 번역되었고, 이후 2006년에 『한국의 시가문학』이 번역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한국 역사의 근원에 대한 기록, 14~19세기 조선의 의사교환 공간, 한국왕조의 역사, <삼국사기>, <목민심서> 등 우리 역사와 사회·정치를 알 수 있는 고전 텍스트와, 불교문화를 알 수 있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서사문학 중에서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소설 <운영전>, <심청전>, <장끼전>, <콩쥐팥쥐>, <토끼전>, <흥부전>, <춘향전>이 번역· 출판되었을 뿐이다.[14] 또 2013년까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을 지원한 인문·사회분

13) 고전 서사문학 영역 대상 작품으로 <금오신화>, 애정전기 한문소설선; <주생전>·<위경천전>·<최척전>·<상사동기>,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 <홍길동전>과 허균의 한문 소설, <이고본 춘향전>, <장화홍련전>과 <박씨전>, <삼설기>, <어면순>, <어우야담>, <청구야담> 등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정선희, 「고전 서사문학 영역(英譯)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2, 39~65쪽.

14) 노상호, 「최근 10년간 한국 고전텍스트의 영어 번역의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24, 2013. 6.; 노진서, 「한국 고전소설의 한영 번역 연구 – 문화소 번역의 양태와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52, 2013. 6.

www.kci.go.kr

야 고전 209종 중에서 고전문학은 단 22종에 국한되어 있어 고전 중에서도 고전문학작품은 더욱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역(英譯)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전서사문학 중에서 다음의 작품들이 영역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미 지원된 고전서사문학으로는, <동야휘집>, <용재총화>, <동국이상국집>, <보한집>, <장화홍련전>, <박씨전>, <금오신화>, <서유견문>, <규합총서>, <열하일기>, <삼국유사>, <간양록>, <이향견문록>, <택리지> 등이 있으나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다. 2013년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고전서사문학으로는 <파한집>, <태평한화골계전>, <어우야담>, 몽유록들, 연암집선, 전기소설들, 신재효 판소리 사설들, <홍길동전>과 허균의 한문소설들, <유충렬전>, <전우치전>, <방한림전>, <삼한습유>, <숙향전>, <숙영낭자전>, <서대주전>, <장끼전>, <배비장전>, <오유란전>, <이춘풍전>, <육미당기>, <바리데기>, <봉산탈춤> 등이 있다. 전기소설, 영웅소설, 애정소설, 우화소설, 세태소설, 한문장편소설 등 고전소설이 대거 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원후보 대상일 뿐이었고 올해에는 한 편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기에 고전서사문학 번역의 속도는 더디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간 도서 중, 2003년 이후에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출간된 고전서사문학 작품들을 보면, 독일어로 번역된 것으로 <홍길동전>, <숙향전>, <운영전>, 판소리 <춘향가>·<심청가>·<수궁가>, <배비장전>, <구운몽>, 연암 소설 등이 있다. 불어로 번역된 것으로는 <열녀춘향수절가>, <변강쇠전>, <수궁가> 등이 있고, 러시아어로는 <춘향전>, <금오신화>, <구운몽> 등이 있다. 특히 <구운몽>은 스페인어, 이태리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등으로도 번역되었고, <홍길동전>은 이태리어로도 번역되었으며, <흥부전>과 <심청전>, <춘향전>을

www.kci.go.kr

엮은『한국고전소설선』은 힌디어로도 번역되었다.[15] 이렇게 꾸준히 번역되고는 있지만 몇몇에 국한되어 있어 새롭게 번역되는 작품이 드물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고전서사문학을 번역하는 일이 예전보다는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우리 고전문학 작품을 적절하게 번역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번역 대상인 고전서사문학들은 비록 현대에 한글로 번역해 놓은 상태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문제의식이라든지 주제의식,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함의와 중의성, 다른 고전 문헌에서 차용한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깊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번역하면서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해(註解)를 달아, 외국의 독자들이 우리 문학의 이야기 구조와 주제의식뿐만 아니라 미학적 특질과 문화적 기반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6] 하지만 주해가 많으면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학술적인 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전파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번역의 저본이 되는 고전문학 작품의 현대역본의 주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번역어 독자들의 수준과 기호에 맞게 재가공하는 일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에 외국어 번역자와 고전서사문학 전공자의 공조는 필수적[17]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5)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간도서 목록, 2013년 10월 번역원 홈페이지 참고.

16) 예를 들어 우리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호칭으로 '김생', '한생'등이 있는데, 이를 영역할 때에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 'Kim Saeng'이라고 쓰든지, 독신의 젊은 남자라는 의미로 'Mr. Kim' 또는 서생(書生)이라는 점을 살려 'Student Kim'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합의점이 필요하다.

17) 더 자세한 것은 정선희(2007)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www.kci.go.kr

3. 한국 고전서사문학의 번역 방안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 모색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고전서사문학을 제대로 번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에는 번역자가 원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더하여 그 작품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도착어권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투른 번역은 오히려 원작의 질을 떨어트려 원작과는 다른 우스운 작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18]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 고전문학을 번역하는 사람은 우리 고전문학의 독자이면서, 이를 새롭게 창작할 수 있는 작가의 자질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 작품을 '주어진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글을 짓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면서도 항상 원작자의 상상력을 따라가면서 원문의 방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려면 번역자는 빈틈없이 원전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양국의 문화에도 정통해야 하며, 훌륭한 언어학자이면서 민속학자여야 한다. 즉 작품의 내·외적 상황에 민감해야 하는데,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인품, 사회적 지위, 경력 등등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19]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른 언어를 전공한 번역자가 잘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들과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고전문학 전공자가 있어야 정확하고도 적절한 번역물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원전의 내용과 의도, 문화를 잘 전달하는 것과 함께, 독자들의

18) 기존의 번역물들 중에는 우리 문학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용렬하게 비춰지게 할 만큼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것들도 꽤 있다고 진단되기도 하였다. 이성일, 「우리 고전 번역의 필요성」, 『민족문화연구』31집, 1998.

19) 송영규(2008), 앞의 논문, 86~87쪽.

www.kci.go.kr

수용성을 고려해서 번역의 초기 단계에는 텍스트를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한 도착어권 독자 중심의 번역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의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출발어 텍스트 중심의 번역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20]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 고전문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번역가는 결코 정확하게 번역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어권의 번역가가 우리 고전문학을 번역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여기에 더하여 동시에 한국어에도 능통한 번역가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영어권 번역가와 한국 고전문학 전공자의 공역이 필요하게 된다. 번역가는 단순히 언어 번역을 세밀하게 해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작품의 주제적인 면, 시대・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면, 독자층의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는 면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다.

번역의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어휘의 면에서, 우리 고전문학에는 있는데 도착어권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고유명사로 처리할 것인지 유사한 어휘로 대체할 것인지 애매하다. 예를 들어 '쌍화차'라는 것을 음역할 것인지 도착어권의 음료 중 적절한 것으로 대체하는 동의어 표현 방식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기 힘들다. 현대소설을 번역한 예를 보면, 나물을 steamed vegetables라고 하거나 사잣밥을 the funeral meal이라고 번역하는 방식을 '서술적 등가'의 방식이라고 하고, 찌개 국물을 stew라고 하거나 신김치를 kimchi라고 한 것을 '상위어 표현', 우거지 찌개를 miso soup으로 한 것을 '동의어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번역들을 조금 수정・보완할 수도 있으니, 나물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므로 앞의 번역보다는 Namool이라고 음역하는 것도 좋을 듯하고, 찌개 국물은 Korean

20) 이형진, 「한국문학 영역(英譯)의 전망과 과제」, 『문예운동』95, 2007. 9.

www.kci.go.kr

pot stew라고 하는 것이, 신김치는 구체적인 맛을 담아 over-fermented kimchi라고 하는 것이, 사잣밥은 문맥적 의미를 담아 the meal for the death angel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21] 인물의 호칭, 인물의 성격이나 외양 묘사도 서술적 등가의 방법을 쓸지, 음역(音譯)을 할지, 문화적 등가의 방법을 쓸지 경우마다 다르다. 사회적 현상이나 관용어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만 성행하거나 우리 고유의 것이면 더욱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대체로 의미 번역을 많이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표현의 표면적 의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 텍스트의 함축적 의미 등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 표현들을 번역하는 방식이 번역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22]

또 <심청전>이나 <춘향전> 같은 고전소설에는 서왕모, 태상노군, 후토부인, 동방삭, 석숭 등의 고유명사들이 나오는데 이를 일일이 본문에서 해설하면서 번역하기 보다는 각주(脚註)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음역만 해놓았기에 원문의 분위기와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춘향이가 옥에서 울면서 부르는 <장탄가(長歎歌)>를 <Jangtanga>라고만 옮겨 놓았기에 길게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요순우탕(堯舜禹湯) 임금님도'라는 구절은 고유명사를 살리지 않고 'A King in a peaceful period'라고 옮겨 놓아, 한 권의 책 안에서도 통일된 원칙이 없었다.[23] 그러나 <흥부전>에서 놀부가 언청이와 곱사등이에게 품삯을 주면서 박을 타게 하는 대목 같은 것은 도착어권의 언어에 맞으면서도 원문

21) 박옥수, 「한영 문학번역에서 의미의 정착」, 『비교문학』 60, 2013. 6, 36~37쪽.

22) 박옥수(2013), 앞의 논문, 35쪽 ; 45~46쪽.

23) 『The story of Chunhyang(춘향전)』,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eries 6,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Baek Am Publishing Co, 2007, 170쪽 ; 179쪽.

www.kci.go.kr

의 느낌을 잘 살려 번역해 주기도 하였다. 판소리 특유의 흥겨움과 골계미까지 전달될 수 있을 듯하다.

곱사등이 톱을 먹인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언청이가 소리를 받아서 하는데, “흘근흘근 흡질이야”

곱사등이 하는 말이, “이 놈 째보야, 흡질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

“입술 없는 녀석이 무슨 소리를 잘 하겠느냐마는 이 다음은 잘 할 것이니 염려 마라.”

곱사등이 소리를 먹인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힘을 써서 당겨 주소.”

언청이가 깨진 입을 억지로 오므리며 소리를 받아 넘기는데, “어이여라 끙이야, 캉키어 주소.”

별안간 곱사등이가 언청이의 뺨을 딱 붙이며, “이 놈 누구더러 흐끙흐끙이야 하느냐?”

언청이가 하는 말이, “너더러 욕을 하였으면 네 아들놈이다.”

The hunchback began to saw first. "Smoothly, Smoothly, we're sawing"

The harelip responded to it. "Zmoothly, Zmoothly, we're zawing"

The hunchback asked. "You, Stupid. What means zawing?"

"How can I pronounce well without lips? But next time I'll do my best. Don't worry."

The hunchback hummed a tune. "Smoothly, Smoothly, we're sawing. Pull it hard"

The harelip responded to a tune, puckering of his lips, "Hey, fuck, bull it har."

Suddenly a hunchback hit the cheeks of the harelip. "You fellow! Whom are you fucking?"

The harelip said, "Never did I curse you!"[24]

www.kci.go.kr

한편,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면을 충실하게 묘사하면서 독백과 대화를 자주 섞어서 서술하는 등 문체가 특별한 작품의 경우에는 이를 잘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도착어권 독자들이 형식적 묘미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고유의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신을 낮추는 방법, 상대를 높이는 방법, 높이는 격조사를 넣는 방법 등 다양하므로 문맥에 맞게 번역해야 할 것이다. 상대를 높이는 경어법이 없는 언어의 경우 존경의 뜻을 담은 호칭을 사용한다거나, 반대로 상대에게 친근함을 섞어 말할 때에는 상대를 낮추는 호칭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25]

위와 같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을 한 후에는, 도착어권 번역자가 번역물의 현지 독자에의 수용에도 적극 개입하여야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고전문학은 외국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작가와 작가론 소개의 글 발표, 일간지나 문학잡지의 서평과 학술적 비평 발표 등을 병행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26] 아울러 번역 작품을 소재로 한 간단한 공연이라든지 사인회, 간담회, 강연회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번역서 출간을 계기로 하여 양

24) 『The story of Heung-bu(흥부전)』,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eries 1,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Baek Am Publishing Co, 2007, 132~133쪽.

25) 박옥수, 「한국 단편소설의 번역에서 드러난 가독성의 규범 - 신경숙의 <그 여자의 이미지> 영역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48, 2012. 6. ; 박옥수, 「한영 문학번역에서 드러난 인간관계의 반영 : <무녀도>의 영역본을 중심으로」, 『비교문학』58, 2012. 10. 참조.

26) 일본 문학 <설국>, <겐지 이야기> 등을 번역한 이들이 모두 미국 대학의 일본문학 전공 교수들이어서, 도착어권 번역가이면서 번역 이후의 일련의 수용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일본문학이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형진(2007), 앞의 논문, 98쪽.

www.kci.go.kr

국 간의 교류 기회도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번역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도착어권의 문화와 취향을 잘 파악하여 그들이 선호할 만한 작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27]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환상적인 작품이라든지 탐미적인 작품들을 대거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나 문화에 대한 선지식이 거의 없는 외국 독자들에게 우리 작품을 읽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일단 읽어보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무 보편적인 소재보다는 한국적인 소재나 속성을 지닌 것을 고르되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 있는 작품들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춘향전>도 <열녀춘향수절가>만을 주로 번역했다면, 이제는 <남원고사>, <이고본 춘향전> 등 다른 장점과 특색이 있는 이본들도 번역했으면 한다. <남원고사>는 <춘향전> 이본 중 가장 길며 당시에 향유되었던 여러 장르의 문학들이 수용되어 있는 독특한 독서물이다. <이고본 춘향전>은 판소리 <춘향가>의 축제적 분위기와 골계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민중들의 해학적인 취향이 반영된 이본이다. 한편, 중국어권에는 그들의 고전문학 작품인 <서상기(西廂記)>의 비평 방법을 변용하여 조선후기의 문인이 <춘향전>을 한문으로 재창작한 <수산광한루기>를 번역하여 출간하면 관심을 가질 듯하다. <서상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책머리에 <춘향전>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이 이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연관성 등을 알려 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운영전> 같이 특별한 사랑 이야기도 외국인들에게

27) 출판으로 연결되는 문학 작품의 번역은 독자의 수요를 감안해야 하기에 도착어권(주로 서양)의 문화에 맞추는 전략을 종종 사용한다. 그럼으로써 원천 문화의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기에 식민주의 헤게모니를 주입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의 독자들은 다른 텍스트를 도착언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한 텍스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 박옥수(2013), 앞의 논문, 2012. 6.

www.kci.go.kr

흥미를 끌 듯하다. 궁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궁녀라는 특별한 신분의 여성들이 왕에게 시(詩)를 비롯한 문학을 배우는 상황, 궁녀와 선비의 사랑, 궁녀를 아끼는 왕의 은근한 애정과 질투, 궁녀들의 욕망과 의사 표현, 팽팽한 긴장감과 안타까운 비애 등이 잘 전달되면 좋을 것이다. 중국에 유학하여 이름을 떨쳤던 우리 문인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한 <최치원전>을 번역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우리 고전소설 중에서 환상성이 두드러지는 <숙향전>, <삼한습유> 등과, 신화와 설화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삼국유사』를 고전문학의 맛을 잘 살려 번역했으면 한다. 그리고 외국의 독자들은 단편보다는 장편소설을 선호하므로,[28] 장편이면서 환상성도 있는 <옥루몽>, <삼한습유>, 우리 민족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인 효나 우애를 강조하는 장편 <육미당기> 등도 번역하면 관심을 끌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육미당기>의 소재 원천인 <적성의전>이 이미 1996년에 번역되어 읽혔다.[29] 서구의 독자들이 아시아 문학에서 기대하는 주제들이 사랑, 자연, 인생의 덧없음이라고 하니[30] <구운몽> 같은 소설이 인기를 얻을 듯하다. 실제로 2004년에 프랑스어로, 2007년에 스페인어와 폴란드어로, 2009년에는 루마니아어로 한국인과 현지인의 공동번역본이 나왔으며, 2011년에는 알브레히트 후베라는 독일인이 몇 해에 걸쳐 공들여 번역한 책이 출간[31]되었다.

---

28) 권영민(1996), 앞의 논문, 14쪽.

29) 최인나, 「러시아에서의 한국 고전 문학 : 러시아어로의 번역 역사에 관하여」, 조동일 외(2008), 『한국학 고전자료의 해외 번역 : 현황과 과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30) 마리온 에거트, 「근대 이전 한국 작품들의 독일어 번역에 관해」, 조동일 외, 앞의 책.

31)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간도서 목록 참고. 2013년 10월 번역원 홈페이지.

www.kci.go.kr

4.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 고전서사문학의 번역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현황을 짚어보고 적절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렇게 우리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전세계 간에는 번역물을 매개로 하여 상호 문화 이해와 소통의 장이 열려야 할 것이다. 우리 고전문학을 전파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들의 문학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번역물을 읽음으로써 그동안 전혀 몰랐던 우리의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관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어 자국의 문학을 우리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서로 소통하게 된다면 나라 간의 문학과 문화, 언어가 고립되지 않고 공유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세계문학사는 풍부해질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문학사가 강대국 중심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성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제3세계 문학이나 소외된 이들의 문학에도 주목하자는 논의들이 일고 있는데, 우리 문학의 번역의 활성화는 이러한 흐름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전서사문학 번역물들은 요즘 부쩍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주 여성, 한국학 전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제재로 사용하기에도 유용할 것이다. 특히 중·고급 학습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적절한 한국고전문학 교재가 많지 않기에 잘된 번역본들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고전서사문학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을 활용한 외국인 교육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다양한 모색과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교육하기에 적절한 고전문학 작품을 선택하고 이를 적당하게 분절 또는 재가공하여

www.kci.go.kr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다. 물론, 고전문학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지만, 이들에서 드러나는 부부관이나 세계관 등이 현대인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등 우리 전통의 계승과 변화를 보여주기에 외국인 교육의 제재로 적절하며, 이를 통한 우리문학의 세계화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춘향전>, <단군신화>, 몇몇 설화 등이 교육 제재로 사용되었고, 최근에 <숙영낭자전>, <소대성전>, <심청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 작품 외에 <장화홍련전>, <홍길동전>, <심청전> 등의 고전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관, 윤리, 신분제도 등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장화홍련전>을 통해서는 계모와 전처 자녀 간의 팽팽한 신경전, 전처 집단의 지위, 가족구조 내의 역학 관계, 가장(家長)의 중요성 등을 고찰하고 교육할 수 있다. <홍길동전>을 통해서는 조선시대의 재취나 첩의 위상, 서얼들의 사회적 제약과 설움, 신분제도, 유토피아 사상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서양의 <로빈후드>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그 서사구조와 주인공의 저항의식의 정도 등을 논할 수도 있다. <심청전>을 통해서는 효(孝)에 대한 생각, 혈연 중심 사고, 따뜻한 정 문화 등을 이야기하면서 외국의 가치관과 비교하거나 결말 다시 쓰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 전설을 활용한다면 좀 더 현실감 있게 교육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전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보문산 전설, 벙어리샘 전설, 돌다리 전설 등을 읽은 뒤에 그 곳을 답사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설명한 뒤 내포하고 있는 윤리관, 가치관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들 고전서사문학 작품을 함께 읽고 그 이야기 속의 갈등이나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작중 인물들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해보거나 찬반을 나누어 토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또한 고전서사문학의 번역물들은 이를 소재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일에도 일조할 것이다. 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영화나 뮤지컬,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따라서 외국인 콘텐츠 기획·제작자들에게 우리 고전서사문학 번역본들이 많이 읽힐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이를 읽고 감발 받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고전서사문학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The story of Heung-bu』,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eries 1,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Baek Am Publishing Co, 2007, 1~203쪽.

『The story of Kong-jwi & Pat-jwi』,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eries 3,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Baek Am Publishing Co, 2000, 1~89쪽.

『The story of Rabbit, The story of Cock pheasant』,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eries 4,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Baek Am Publishing Co, 2000, 1~167쪽.

『The story of Sim Cheong』,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eries 5,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Baek Am Publishing Co, 2000, 1~207쪽.

『The story of Chunhyang』,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eries 6,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Baek Am Publishing Co, 2007, 1~275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편,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2010, 1~411쪽.

권영민,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세계비교문학연구』, 1996, 7~29쪽.

김재현, 「한국시 영역의 현황 및 방법론적 고찰 - 문제와 전망」, 『영어영문학』34권 1호, 1988, 159~186쪽.

김현, 「문화콘텐츠, 정보기술 플랫폼, 그곳에서의 인문지식」, 『철학연구』90, 2010, 63~88쪽.

김효중, 「한국 현대시의 영역에 관한 고찰 - 김소월 시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문학』42, 2007, 29~50쪽.

노상호, 「최근 10년간 한국 고전텍스트의 영어 번역의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24, 2013. 6, 147~166쪽.

노진서, 「한국 고전소설의 한영 번역 연구 - 문화소 번역의 양태와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52, 2013. 6, 101~120쪽.

박옥수, 「한국 단편소설의 번역에서 드러난 가독성의 규범 - 신경숙의 <그 여자의 이미지> 영역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48, 2012. 6, 165~190쪽.

_____, 「한영 문학번역에서 드러난 인간관계의 반영 : <무녀도>의 영역본을 중심으로」, 『비교문학』58, 2012. 10, 227~251쪽.

www.kci.go.kr

_____, 「한영 문학번역에서 의미의 정착 -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의 영역본의 분석에 근거해서」, 『비교문학』 60, 2013. 6, 31~57쪽.
박지훈, 「문화적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글로벌문화콘텐츠』6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1. 6, 67~100쪽.
박진임,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 : 시조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8권 1호, 2007 봄, 153쪽.
부산대 점필재 연구소 고전번역학 센터, 『한국 고전번역학의 구성과 모색』, 소명출판, 2013, 1~392쪽.
송영규, 「한국 번역 문학의 전망과 과제」, 『문예운동』95호, 2007. 9, 82~88쪽.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7권 2호, 2003, 279~301쪽.
오윤선, 「한국 고소설 영역의 양상과 의의」, 고려대 박사논문, 2005, 1~180쪽.
_____, 「한국설화 영역본의 현황과 특징 일고찰 - <견묘쟁주설화>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21, 2011, 207~239쪽.
_____, 「근대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 『동화와 번역』23, 2012, 205~231쪽.
윤여탁, 「세계화 시대의 한국문학 : 세계문학과 지역문학의 좌표」, 『국어국문학』155, 2010. 8, 19~38쪽.
이성일, 「우리 고전 번역의 필요성」, 『민족문화연구』31집, 1998, 315~323쪽.
이인숙, 「한국문학 프랑스어 번역에 대한 고찰 -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56, 2003, 767~794쪽.
이형진, 「한국문학 영역(英譯)의 전망과 과제」, 『문예운동』95, 2007. 9, 95~102쪽.
임경순,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1~419쪽.
임금복,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과 한국학의 한 통로로서 한국문화 -'연세 한국어'에 나타난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국제한국학연구』4, 2010, 93~122쪽.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영역의 제 문제」,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703~742쪽.
정선희, 「고전서사문학 영역(英譯)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16, 2007, 39~65쪽.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 - <숙영낭

www.kci.go.kr

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7, 2013. 6, 29~60쪽.
전성기, 「제문론, 인문학번역, 번역인문학」, 『불어불문학연구』89, 2012. 봄, 413~442쪽.
존 프랭클, 「새로운 시작 : 북미 대학의 한국문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29집, 2006, 155~168쪽.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 그 양상의 총체적 서술을 위한 기본 설계』, 지식산업사, 2002, 13~539쪽.
_____,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3 - 국내외 학문의 만남』, 계명대 출판부, 2006, 11~461쪽.
_____,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7 - 일반이론 정립』, 계명대 출판부, 2008, 13~453쪽.
조동일 외, 『한국학 고전 자료의 해외 번역 : 현황과 과제』, 계명대 출판부, 2008, 11~359쪽.
최경열, 「한문번역에 대한 몇 가지 견해 :『한비자』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28호, 2007, 445~453쪽.

www.kci.go.kr

ABSTRACT

Translation of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and seeking its potential as World Literature

Jeung, Sun-hee

The present paper contemplates translation of Korean Narrative Literature and suggests how it should be advanced. The paper contemplates requirements and things to consider for proper and effective translation. The paper also discusses which works of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should be translated and how they should be translated in order to be read by more foreigners so that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can emerge as World Literature. Newness will be added to the history of World Literature as translations of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are spreaded. Those translations will open a place of mutual culture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the whole world.

Key Words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English Translation, World Literature, Korean Culture, spread

논문투고일 : 2013. 10. 21
심사완료일 : 2013. 11. 19
게재확정일 : 2013. 11. 26

www.kci.go.kr